

## 인터뷰 자료

###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보고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확립된 개념
  - ※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 1992년 6월에 지속가능발전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UN환경발전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개념으로 정착
  - 그리고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됨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서 현재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용어임
-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1기, 2기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2003년 12월에 참여정부에서 새로운 3기 위원회가 출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는 우리 위원회의 목적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 즉,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물, 에너지, 국토 및 교통 등의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임

### 2.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조직구성이 눈길을 끄는데, 설명을 부탁한다...?

-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특징은 이전 위원회가 약 20명 정도의 민간인과 13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였는데 비해 제3기 위원회는 77명으로 구성된 다소 큰 규모의 위원회로 새로 구성된 것임
  - 16개 광역지자체별로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역대표성을 갖는 위원 48명과 직능대표성을 갖는 위원 29명 등 총 77

명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함

-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폭 넓은 대표성을 갖는 권위있는 위원회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3. 1,2기 위원회보다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나?

-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3년 12월에 출범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 구성외에도 크게 2가지 점에서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가짐
  - 첫째로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를 세우고 추진하는 12개의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정책자문안을 만들어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는 ‘일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음
  - 둘째, 물, 에너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등 기존에 하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일을 추가로 맡게 되었음
  - 우리사회가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적인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규칙과 절차를 만들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4. 지속위의 지금까지 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 준비, 갈등관련 제도 개선, 갈등관리교육·포럼 등의 추진으로 갈등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것임
  - 우리 위원회는 장기적인 갈등예방과 조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결과를 초안에 반영하여 현재 갈등관련법의 입법절차를 진행중임
  - 공공사업과 관련되는 개별법에 대해 갈등의 구조적·제도적 원인 분석과 주민참가절차의 적정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현재 지침작성중
  - 중앙공무원 등 각 교육기관에 갈등관리교육 과정 설치 및 갈등워크샵 개최
-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 정책 수립과 물관리체계구축,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밑그림을 차질없이 그려나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경제·사회·환경부문 등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연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지역차원의 주요 정책수립 및 계획활동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제도적 메카니즘 구축방

## 안도 연구중임

### 5.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무엇인가?

- 우리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원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활동 중임
  -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① 활력있는 경제, 높은 삶의 질 ②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 ③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④ 국가적인 사회갈등의 조정·예방을 통한 국민통합 등 네 가지임
  - 추진원칙은 참여와 책임, 대화와 토론, 예방과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책임있는 이해당사자와 지역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자 사이에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예방중심의 정책, 통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드는 것임

### 6. 지난 22일 갈등관리 포럼을 열었다.취지와 성과는 무엇인가?

- 공공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간에 복잡다기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갈등의 예방과 합의적 해결보다는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대립과 반목으로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갈등해결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수단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갈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대안을 찾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토론의 장이 보다 활발히 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문가·시민단체·산업계·관련부처 등 각계가 참여하여 갈등관련 현안이나 정책이슈를 공론화하는 장을 열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조성해 나가고자 갈등관리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2일 열린 제1회 갈등관리포럼에는 지속위 위원, 정부부처의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사회각계각층 인사 67명이 참가하여 갈등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 먼저 주제발표와 우리나라의 갈등구조와 관리체계 진단, 사회저변의 갈등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의 개선방안이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제시되었고, 갈등의 예방, 해소, 갈등관리와 조직학습 등 3단계의 갈등관리전략과 법령 제정의 필요성 등이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었음
- 이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참가자 전체의 의견을 모아 보았음. 참가자들을 총 7개의 분임으로 나누고 각자가 생각하는 갈등관련 추진과제를 카드에 적어내도록 한 후 분임에 속한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그룹핑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metaplan 기법이 활용되었음
- 이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문제에 있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로 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②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완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③ 국가권력의 분산과 갈등을 보는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혁신, ④ 참여범위평가제의 도입을 통한 정책결정에의 참여 제도화, ⑤ 절차를 중시하는 풍토 정착, ⑥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과 나눔 문화의 확산, ⑦ 관료문화의 개혁과 부처간 조정의 원활화, ⑧ 갈등조정기구 설치 등 법제도의 정비, ⑨ 각 분야의 대표성과 권위 확보, ⑩ 갈등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요한 과제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음

7. 최근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

- 우리 위원회는 공공정책·사업을 둘러싼 우리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혹은 ‘사회적합의촉진을위한갈등조정기본법’)시안을 마련하여 시민단체·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 갈등관리위원회는 동 시안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등 공공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이며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7인~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2/3이상 되도록 하고 있음
-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와 해당기관의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현재 논의중임

7-1 지속위가 추진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

- 앞서 말씀드린 기본법 제정외에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전반적인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현행 법·제도 중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절차적 적정성이 부족한 점, 법 집행의 효율성이 부족한 법령 등을 개선할 계획임
- 아울러 우리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공무원들의 의식과 갈등관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 여 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부터 공무원교육계획에 의거,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나 한탄강댐 문제는 특별히 직접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음
  - 금년 초부터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단장 정진승 KDI 정책대학원장)’을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현재는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한탄강댐조정회의)’를 구성하여 관련당사자간 쟁점부분을 논의하고 있음
  - 한탄강댐조정회의에는 한탄강댐에 대한 찬·반 주민과 환경단체, 정부 등 4개 관련당사자 대표자들(총 14명)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조정회의를 열고 있음
  - 금년 8월말까지는 한탄강댐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나, 만약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 대통령께 자문안을 보고드릴 예정임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정부, 찬반주민, 환경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사실임
  - 이 사례가 성공하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갈등예방과 조정,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8.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 우리위원회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면 크게 갈등관리정책, 에너지·산업정책, 물·국토·자연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 등 4개 정책분야에 6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위원회 내에 5개 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무국내에 각 과제별로 담당 팀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5개 전문위원회는 사회·환경·건강, 갈등관리,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등이며, 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을 구성·운영
  - 이러한 위원회와 팀에는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어느 한쪽에 편협된 시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략 등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토록 하는 위원회임

#### 9. 출범초기 물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을 보면,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서 세계 평균의 1.3배에 달하나,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며, 연간 전체 강수량의 70%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계절적 하천유량의 변동이 심하여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는 등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비점오염 증가 및 하천유지용수의 부족 등으로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로 인해 신규 수자원 개발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간 물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주민-시민단체간 합의도출 체계가 미흡하고, 유역차원이 아닌 행정구역단위의 물관리로 인해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물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물관리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수량, 수질, 재해, 갈등해소,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정책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에너지안보 강화,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 구축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는 에너지안정공급 및 최적 에너지믹스,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을 들 수 있음
  -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타 정책과의 우선순위나 추진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10. 3기 지속가능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

- 우리위원회에서는 활력 있는 경제와 높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사회,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 통합을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우선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갈등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 법안에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이를 설치토록 할 계획임
    - 금년 7월초까지 갈등관련제도개선정비지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부처의 제도개선안을 취합하여 '05. 1월 대통령께 보고
    - 7월 하순에는 '갈등관리워크샵' 개최 및 '갈등관리포럼' 등도 개최하여 갈등관리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임
    - 그리고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당사자회의」 갈등조정 활동도 본격 수행하여 금년 7월중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임
  -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 수립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10월중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금년 7월까지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국토관리정책,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이 전략에는 「지방의제21」 실천전략, 사회저변층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지속가능성평가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등도 함께 포함될 예정임
    - ‘03년 상반기에 우리위원회가 만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기본구상연구’안을 토로 금년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결과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중에 국정과제회의 보고를 할 계획임
  -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정과제회의 보고후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게 될 것임